社 說

진취적이고 온고지신적 자세 필요

——— 전공과목 개편논의에 대하여

학생과 교수간에 교과목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각과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학원민주화로 가는 하나의 획기적인 행사로써 끝내 대학사에 기록될 장거라 아니할 수 없다.

교심위에서 실시했던 '전공교과과정'에 대한 설문조사는 그 개편의 필요성을 압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 자신들이 전공하고 있는 과목에 대한 만족도는 10%정도에 그치고 있다. 전공과목의 개편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사회진출문제와의 연계성, 교수·강사의 자질문제와 시대에의 낙후성이 크게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전공과목개편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다양한 전공분야의 설치, 선택기회의 확대, 그내용의 체계성과 교수충원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상의 조사가 교수가 참여하지 않은 학생만의 설문조사라는 점에서 한계성을 갖고 있지만, 왜 전공교과목이 개편되어야 하는가와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몇마디 제언을 하고 싶다.

우선 개편은 진취적이되 온고지신적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너무 정체적이었다고 생각되는 부문은 과감히 개폐하고, 또 새로이 창출된 학문영역이나 필요를 크게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과목의 세분화는 끝내 학문의 시대적 경향성이라는 한계점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각과의 특수한 사정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골격이되는 대종의 과목을 정하고 과목내에 여러세부적 분야를 포괄하며 진보적학문경향과 연구업적을 간단없이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교과목이 4년마다 한번씩 수리됨으로 점진적이고 진취적인 지혜를 모아야 할것이며 지나친 효용성과 시대성때문에 존속의 우(愚)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개편 만큼이나 중요한것은 교수가 보다 알찬 강의를 위해 연구와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것이며 자신뿐 아니라 다른이의 연구업적을 충분히 수렴 축적해야 할것이다. 학생 또한 학과목을 단순히 학점이수를 위한 안이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지한 학문적 호기심과 탐구정신으로 과목에 임해야 할 것이다. 사실 학생의 수강태도가 그과목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열띤 질문과 토론이 있는 곳에 어떻게 안이한 강의가 있을 수 있겠는가? 관계재위의 심기일전을 거듭 촉구한다.

신뢰바탕, 실질적 정책 수립해야

—— 1차 남북고위급회담을 보고

남북고위급회담이 지난 4일부터 3박4일동안 7천만 겨레의 통일염원과 세계의 이목 속에 서울에서 있었다.

남측의 다각적 교류와 협력이란 기능주의적 접근과 정치·군사등 본질적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북측의 일괄주의적 입장이 대립될 것이란 예상 속에서 큰 성과는 기대할 수 없었으나 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마음 속에는 일말의 희망속에 긍정적 기대를 가졌었다. 그러나 이제까지 있어 왔던 다각적 민간부문의 교류를 무분별한 선심성 정책 남발과 구체적 후속조치 없는 정책선언으로 가로막은 양정부 차원의 대화에서 군축등 중요한 실제적 통일사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하는 장(場)이 되었고, 실질적 성과물로는 남측의 유엔 단독가입 보류, 이산가족의 방문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의 재계와 다음 10월16일 있을 2차회담만 타결을 보았다. 우선 종전의 적대, 전략적 자세에서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분위기 조성에 노력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은 양측 정권이 적대관계 속에서 통일정책을 서로의 정권유지에 이용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두체제의 고위급회담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남측과 북측의 잘잘못을 밝혀 문제점만 들춰내기 보다는 발전적인 비판을 가해야 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서로의 통일정책만을 주장하기 보다는 스스로 자체의 통일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하자는 측면에서 북측도 이제는 보다 이해적이고 통일접근적 방안이 제기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이제는 남쪽의 경우도, 정권의 교체에 따른 통일정책의 변경이 아닌 논리와 합리성 있는 통일정책 수립과, 통일정책과 괴리를 보이는 보안법 철폐 및 방북인사의 석방등 스스로 통일에 대한 걸림돌을 없애고 보다 자신감있는 태도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남북 7천만의 통일 열기와 열망에도 불구하고 양측사이에 통일을 위한 어떤 실질적인 조치나 경험축적이 너무나 부족했다. 이제는 독일의 통일을 부러운 감상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아 성급한 통일논리를 펴기보다는 실천적 대안을 갖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계각층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정권유지적 홍보차원의 입과 가슴으로 통일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다각적 민간교류의 추진으로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민중의 신뢰 바탕위에서 실질적인 정책을 세워 대화하는 것 이외에는 통일에 대한 정도(正道)는 없으리라 본다.

외부통제 된 '인권의 사각지대'

——— 교도소內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사론

I. 교도소 폭력에 시달리는 양심수들

—"국가기관에서 폭력이란 있을 수 없다."(법무부 보안2과장 이순길, 피해자 가족과 변호사들과의 면담에서. 90년8월31일)

폭행사례들:〈서울구치소〉8월27일 오후 김용기씨(33세,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노동자동맹 사건)외 3명이 교무과 사책담당을 만나 '해방전후사의 인식' '진짜노동자'등이 분명히 금서가 아닌데도 반입이 안되고 있으므로 항의하고 반입을 요구하다가 교도관들로부터 머리채를 휘어잡히는등 폭행을 당했다. 김씨등은 징벌방에 격리수용되고 이사실이 양심수들에 알려지자 당시 운동, 접견중이던 10여명이 교무과로 찾아가 항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숫자는 30~4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들은 대표를 뽑아 면담에 들어갔고 상호조정이 이루어지고 곧 정리가 될듯 하였다. 그런데 이때 약 300여명의 교도관이 수갑과 포승줄을 가지고 가스총을 발사하면서 진압하기 시작했다. 양심수들은 문제가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5분만 여유를 주면 정리하고 해산하겠다고 했으나 교도관들은 이를 무시하고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면서 징벌방으로 끌고갔고, 이들의 환방을 요구하는 다른 시국관련사범들을 또 끌고가 징벌방에 쳐넣었다(모두 100여명).

자술서와 반성문을 강요하고, 거부한다고 10여명씩 들어와 얼굴을 가리고 짓밟고 두드려패고 심지어 비녀꽂기(손을 뒤로묶고 발을 뒤로 묶어 등뒤에서 함께 묶는다. 몸이 활처럼 휜 상태에서 고통이 너무 심해 30분이상 견뎌내는 장사가 없다는 고문)까지 했다. 이과정에서 이성우씨(일빛출판사 대표)는 집단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서졌다(전치 10주). 문광명씨(전서울대 총학생회장)는 손, 머리, 가슴에 유리파편이 찍혀 10여 바늘을 꿰맸다. 김명식씨(전민련 대외협력국장)는 밟혀서 허리를 거의 쓰지 못할 정도로 다쳤으나 엑스레이 촬영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들뿐이 아니다. 이렇게 해놓고선 양심수들이 '점거농성'을 했다고 뒤집어 씌우고 교도소내 질서확립을 위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는다. 10여명을 주동자로 분류해 폭력혐의로 추가기소도 하겠다고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

〈마산교도소〉7월25일 일반재소자 배영태(32세)의 부인이 남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면회를 하려다가 발각이 되어 면회를 못하게 되었다. 이를 안 배씨는 면회를 시켜줄 것을 계속 요구하였고 교도소측은 비상벨을 누르고 직원을 불러 배씨를 보안과 지하실로 끌로가 손발을 묶고 폭행을 하였다. 부인과 남편이 서로 만나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일이 2주일 이상을 끌면서 양심수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마산교도소 폭력사태'의 출발이었다. 교도소측은 접견실을 지나다가 배씨의 폭행에 항의하는 이재구씨(일꾼노동문제연구소)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이에 양심수들이 분개, 집단항의하다가 되려 모진 고문과 폭력을 당해야 했다. 비녀꽂기, 물고문, 목조르기까지 동원된 모진 고문속에 35명 양심수 전원이 다치고 전교조 마산지회장 안종복선생는 은 생명이 위독할 정도가 되어 긴급히 사회병원에 호송되는 일이 있었다.

재소자를 만나려는 가족들이 서울 구치소 철문앞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항의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한겨레신문 8월29일자)

도서검열·폭력남발등 인간성 경시

일제, 유신잔재 벗어나는 제도적 대안 필요

〈목포교도소〉6월12일, 양심수 하태옥씨가 담당교도관과 말다툼을 했다가 보안계장의 지휘아래 보안과 지하실로 끌려가 심한 욕설을 당하고 수갑과 포승줄에 묶인채 구둣발로 온몸을 짓밟히고 교도관들에게 강제삭발을 당했다. 6월13일, 폭력중지 촉구를 요구하다 양심수 한명 역시 강제삭발 당함. 7월31일(인권유린중지, 교도소당국 사과요구 단식6일째), 보안과장이 면담하자고 양심수들을 불러 강제급식을 시켰다. 교도관 10여명이 달려들어 온몸을 발로 짓밟아 누른 후, 눈을 가리고 코를 막고 입에 주전자를 넣어 강제로 죽을 부어 넣었다. 당시 하태옥씨는 숨이 죽을 지경인데 교도관 하나가 나무막대기로 입을 마구 쑤시며 죽을 밀어 넣어 견딜 수 없어 혀를 깨물어 항의 피가 흐르는데도 강제급식을 당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교도소 폭력사건들의 예는 매우 많다. 90년 들어서만도 부산구치소, 대전교도소, 안양교도소, 의정부교도소, 수원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등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위와 비슷한 고문, 폭행사건들이 발생했다. 국가기관이 폭력을 자행하는 자체가 이미 커다란 문제이지만 위의 사례들에서 보여지듯이 사건의 출발이 너무나도 사소하고 당연한 일들이라는데 사건의 심각성이 있다. 책이나 면회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교도소측에서 대화로 풀지않고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것도 코뼈가 내려 앉고 얼굴을 10바늘 이상 꿰멜정도로 두드려 패서 무마하려는 것이다.

II. 교도소의 생활환경

지금 전국 35개 교도소에는 1300여명의 양심수와 약 5만여명의 일반재소자들이 수감되어 있다. 이들은 형이 확정된 사람이든지 단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모두 죄인취급을 받고 있다. 교도소로 넘어가자마자 푸른 죄수복을 입어야하고 일체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다. 또 여기에 멸시, 천대, 굶주림(징역에서도 가난한 사람은 배고프다. 특히, 소년수들은 심한 굶주림에 시달린다.), 욕설, 폭행에 끊임없이 고통받는다. 위에 열거한 사례들은 '하얀집의 왕' 교도소에서 갇힌 수인들이 겪어야 하는 아픔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도 교도소에서 상대적으로 칙사대접을 받는 양심수들에 관한 이야기이기에 교도소의 인권상황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올해 '유엔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면서 선진국의 이모저모를 흉내내려는 정부의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교도소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황무지로 버려져 있다. 먼저 행형법이 일제시대의 것을 거의 그대로 따른 것이고, 간부들이 일제시대나 이승만, 박정희시대에 교육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라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 찌들어 있다. 이런 상태에서 15척 담장으로 사회와 철저히 차단되어 있어 교도소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다. 또 교도소장에게는 전능의 권력이 주어져 있고, 수인들에게는 '결코 인간이 아닌 죄인'의 지위가 주어져 있다. 교도소의 인권상황이 많은 사람들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개선되지 않는 법적, 제도적 원인이 여기에 있다.

이제 간략하나마 이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자(양심수를 중심으로)

1)수용실태(사방): 재소자에게 가장 중요한 시설은 방이다. 운동이나 접견을 하러 외부로 나간 시간을 제외하고는 잠자고, 식사를 하고, 책을 보고, 휴식을 이곳 거실에서 취한다. 일반적으로 양심수에게 주어지는 거실은 0.75평정도의 독방이다.(양쪽 팔을 다 벌리지 못할 넓이에, 누우면 위에 한자정도 남을 길이) 교도소 사정상 독거시설이 부족해서 간혹 혼거방에서 일반재소자와 함께 수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특수한 경우이고 어느 곳에 수용하는가는 전적으로 교도소의 재량이다.

2)운동: 모든 재소자들에게 하루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맑은 날은 햇볕을 쬘 수 있다. 거실의 좁은공간에서 하루종일 앉아있는 탓에 운동시간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운동할 수 있는 공간(운동장)이 없다. 거의 모든 교도소에 큰 운동장이 하나씩 있지만 잘 공개되지 않고 재소자들은 건물옆에 붙어 있는 작은 공간을 이용한다. 뛰어다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걸어다니면서 그저 햇볕이나 쬘 수 있다. 일반재소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은 전무하고 양심수들에게 배드민턴이나 배구공 정도가 주어진다.

3) 도서: 수용기간동안 양심수들이 가장 큰 관심거리는 역시 책이다. 책이 잘 들어 오면 일단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그러나 앞의 서울구치소 폭행사건도 도서검열문제에서 비롯되었듯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법무부의 불허도서목록, 문공부 불허도서목록, 교도소 자체검사기준, 여기에 담당교도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불허기준이 되고 있다. 사법부나 검찰의 법률적인 판단으로 불허가 된 것도 아니고 '보신주의'에 물들어 있는 일선 교도관들(책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판단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이 가족과 친구들의 정성이 담긴 소중한 책들을 앗아가 버린다.

4) 서신, 접견: 미결수는 매일, 기결수는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월1회씩 면회하고 편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면회시간은 짧으면 5분, 길어야 30분정도이다. 면회시 대화내용은 옆에서 담당교도관이모두 적고 오고가는 편지는 검열을 받는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으면 빨간 밑줄이 그어져 위로 보고되고 안기부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현재의 행형법은 문제가 되는 편지를 교도소측이 일방적으로 소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많은 편지들이 중간에 분실되고 잉크로 시커멓게 지워져서 전달되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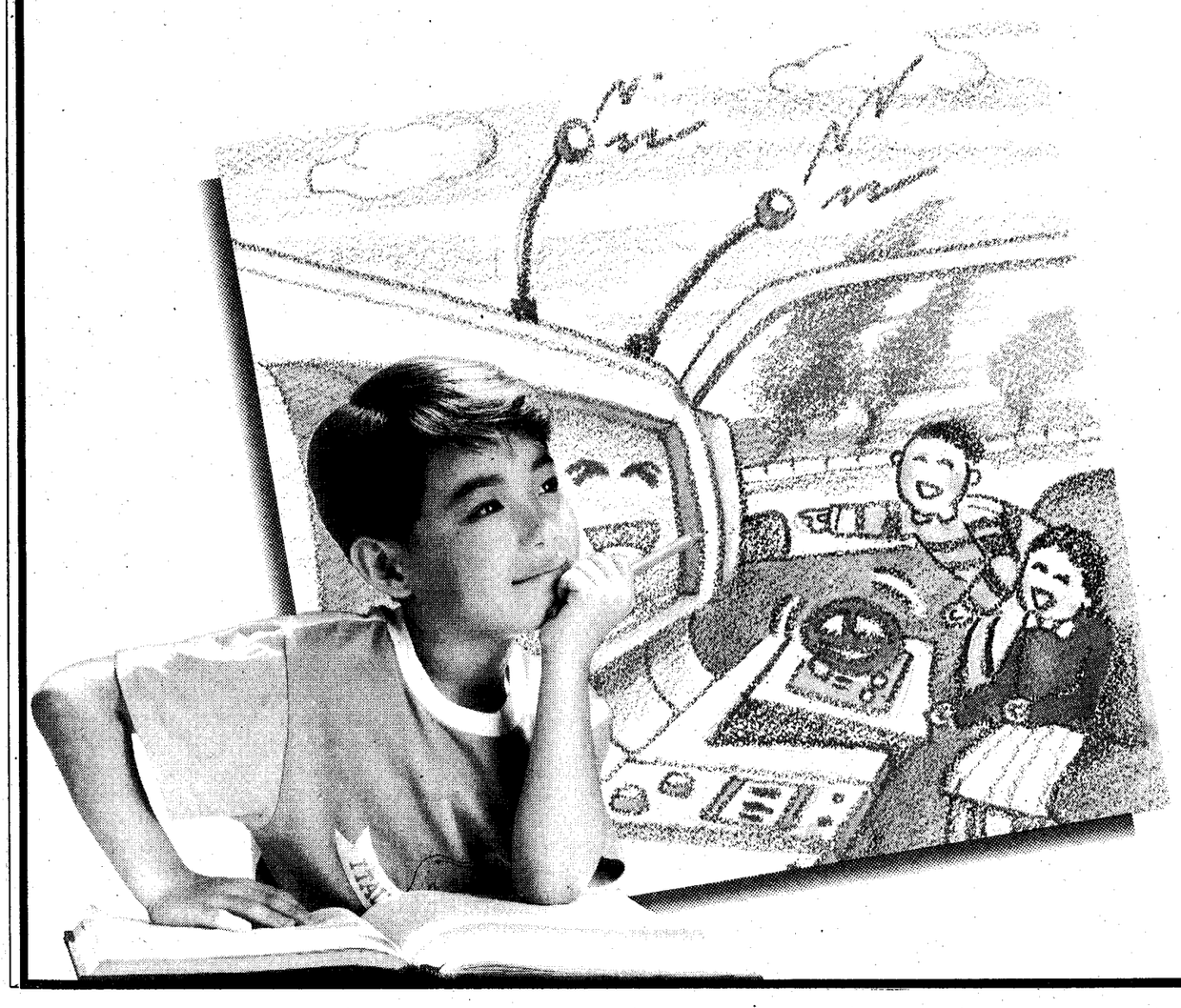
4)의료: 심한 운동부족, 부족한 영양상태로 인한 많은 재소자들은 질병에 시달린다. 그러나 교도소에는 의료시설이 형편없다. 일례로 약3000명 가량 수용하고 있는 영등포교도소에는 상근하는 의사 한명없다. 의술에 대해 전문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 의무과 직원들(교도관)이 의무부장이란 직책을 갖고 환자를 진찰하고 투약을 한다. 이런 상황이니 감기약과 두통약이 같고 허리디스크를 호소해도 소화제를 준다.

5) 부식(먹거리): 형식적으로는 1식 3찬이지만 내용은 형편없다. 매월 식단이 짜여지고 식단에 따라 음식이 나온다. 옛날에는 콩밥이 나왔지만 지금은 밥과 보리가 5:5로 썩여 나온다(5:5가 맞는지 하나하나 세어볼 수는 없지만 온통 시커먼 보리들이다). 반찬을 보면 아무리 외부와 차단된 교도소라지만 재소자들은 바깥 물가를 금방 알 수가 있다. 무우가 싸면 반찬이 무우이고 미역이 싸면 또 미역뿐이다. 따라서 먹을 것은 당연히 부족할 수 밖에 없고 배고플 때는 구매를 통해 보충하곤 한다. 빈부의 차는 이곳에서도 크며 돈없는 사람은 더욱 괴롭다.

김 현 권
〈민주화실천 가족협의회 간사〉

"이러니 시합이 돼?"

작은 꿈들이 모여 힘있는 나라를 만듭니다. ⑤



"삼촌! '키트' 처럼 혼자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 아주 근사한 생각이구나,
지훈이는 컴퓨터를 좋아하니까 컴퓨터에 관한 연구를 계속해 간다면
스스로 생각하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가능할거야.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인공지능컴퓨터에 관한 연구가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거든.

자동차에 이것을 활용하면 Z카 '키트' 처럼 말하고 움직이는
자동차도 만들 수 있지. 보턴 하나만 눌러주면,
차 스스로 판단해서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그런 자동차 말이야!

그 꿈을 계속 지켜가렴,
지훈이가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들면 몸이 불편한 장애인,
운전이 힘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든 사람들이 정말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단다.

언젠가 슈바이처박사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싶다고 했었지?
"우리가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하겠다는 꿈을 갖고 산다면
세상은 정말 편리하고 좋은 곳이 될거야."

D대 전자공학과2년 최 양희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나라의 미래는 밝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작은 꿈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HD 現代自動車